하루를 시작하며

제주 마을교육활동가, '학교'라는 성역으로부터의 초대

고 나 해
시인

아기새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밖에서 어미새가 알을 쪼아 거들어주어야 한다. 이 말은 아이의 성장이 아이의 자생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뜻을 함의한다. 곧 아이에게 가정과 학교, 마을의 교육이 있어야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와 지구촌의 시민으로 발돋움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운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인류는 수차례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교육까지 시장경제의 도구로 분업화했고, 이에 따라 학교도 공장형으로 획일화, 조직화되면서 사회적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도구적 기능의 장으로 변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학벌은 곧 권력이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시민적 삶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미래 사회의 질은 예나 지금이나 학교를 기반으로, 그 안과 밖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의 질에 달려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지금 빠르게 변하는 IT 시대 속에서 학교는 다시 과거의 견고한 아성을 깨고 '이론'보다 '경험'을, '지식'보다 '지혜'를, '경쟁'보다 '포용'을, '순위'보다 '관계'를,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렇게 실체적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바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총 30시간 '2024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기본과정'을 통해 100명의 마을교육활동가를 배출했다.

'아리아리 마을교육활동가, 교사를 만나다'라는 표제어로 진행된 이 과정에 지역의 인재 103명이 참가해, 한파가 몰아치는 날에도 어김없이 진정 시대가 요구하는 뜨거운 교육의 장을 열었다. 그리고 "100년을 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은 교과서 밖의 활동인 마을의 '소통, 창의력,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김광수 교육감의 인사말을 필두로, 마을교육을 혁신적으로 주도하는 제주 출신의 타 지역 현역 교사, 제주의 젊은 현역 교사 9명, 모범적인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자가 함께 이끌었다.

내용은 마을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아이들이 정체성을 찾는 제주어 알기부터 시작해서 마을의 신화, 역사, 4·3, 감귤 농사, 해녀 등 마을의 자연환경과 자원을 마을 어른들과 함께 탐구하는 현장 체험을 거쳐 내면화하고 재구성해 내는 실체적 교과 학습 과정들을 선보였다.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총괄 담당한 이현주 장학사는 '학교 교육에 꼭 필요한, 지역의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쓰이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비로소 교사와 협업할 수 있는 마을교육 인력풀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마을교육활동가는 미래의 학습사회로 가는 발판이다. 이 뜻깊은 탄생을 제주도민 전체가 함께 보듬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 일이다. 마을교육활동가 아리아리.

사설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 혼란 최소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준비 기간을 이유로 2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이러한 유예기간을 거쳤으나 대다수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미처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재해 예방조치를 않다가 근로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법 적용 확대로 제주지역은 2022년 기준 총 1만902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1만6569명에 이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모르지 않는다.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영세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칫 심각한 경영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영세기업이 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라. 개인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고,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과 손해액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이런 처벌이 내려지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때문에 영세기업들의 우려를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열린마당

애월119안전센터 실습을 마치며

김 지 현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어릴 적 TV 속 구급대원의 모습을 보면서 119구급대원의 꿈을 키웠다. 대학 전공을 응급구조과로 정한 것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다.

애월119안전센터에서의 실습은 값진 경험을 안겨줬다. 아직도 나는 실습 첫날의 설렘과 두려움을 잊을 수 없다. 처음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소방관들은 근무 교대를 하고 있었다. 대원들이 바삐 움직여서일까. '현장에서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긴장했다. 다행히 구급대원 반장님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긴장이 누그러졌다.

출동하면서 여러 환자들의 증상들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환자는 흉통 환자였다.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나는 직접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서 당황했지만 구급대원들은 망설임이 없이 심전도를 분석하고 리듬에 대해 설명했다.

매번 사고 현장에서 주저하지 않고 환자를 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대원의 모습을 보면서 119구급대원에 대한 꿈을 굳혔다. 한 달 동안의 실습이 짧게 느껴졌다. 환자를 만나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낯선 환경에서의 실습이었지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애월119센터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모두 안심하고 화장실 이용하세요"

제주시 불법촬영 점검 강화

○…제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중·개방화장실 421곳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

이에 시는 시청 14개 및 읍면동 26개 부서를 비롯해 경찰과 협조해 불법 카메라 탐지기 및 불법 촬영 탐지 카드를 활용해 점검에 나서며 특히 화장실 내 환풍기, 벽면 구멍, 의심 물품 등을 집중 탐색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 즉시 현장 보존 후 경찰에 신고할 방침.

시 관계자는 "지난해 5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1405개소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불법 촬영 점검 등 범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피력. 백금탁기자

고지서 활용 APEC 유치 홍보

○…매월 발행되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여백을 활용해 도·시정 홍보를 벌이고 있는 서귀포시에서 다음 달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기원' 문구를 게재할 예정.

3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는 서귀포 전체 8만8722세대를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수령인들이 요금을 확인하면서 홍보 문구도 같이 읽게 돼 각종 정책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서귀포시는 "1월부터는 글씨체를 바꾸고 요금 정보 수록 위치를 이동하는 등 고지서 디자인도 시민들이 읽기 편하게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상하수도 고지서를 활용해 도·시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 진선희기자

어렵지만 희망 나눔의 실천은 이어졌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100℃를 넘어섰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을 1%씩 채울 때마다 1℃가 오른다. 목표에 달성하면 100℃를 나타낸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희망 2024 나눔캠페인'이 종료(1월31일) 이틀을 남겨놓고 43억4161만원이 모금됐다. 2023 캠페인 47억6410만원에 비해선 다소 미흡하지만 목표액 43억2000만원의 100.5%였다. 지난해인 경우 전년보다 10억 가까이 증가하면서 사랑의 온도탑 온도도 117.9℃가 됐다. 37~38억 수준이었던 2022년과 2021년에 비해 2년 연속 나눔의 깊이가 더해졌다. 이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금 실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역대 최고 모금액은 47억8400만원을 기록했던 2020 캠페인이었다.

당초 이번 나눔 캠페인은 계속된 경기 침체의 여파로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쉽게 지갑을 열지 못했다. 개인이 힘들어지자 법인이 나섰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주도개발공사를 포함 (주)네오플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농협 농축산인행복나눔본부 하나로마트 등의 기부가 이어졌다. 법인기부 금액은 모금액의 64%를 차지했다.

사랑의 온도탑이 100℃를 넘어섰다는 것은 그만큼 나눔의 의지가 실현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모두 어렵지만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전해졌다는 것이다. 캠페인 기간을 떠나 연중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부 고

김경국(목민) 어머니 제주고씨 신아(숙부인·향년 97세)께서 서기 2024년 1월 30일 08시 3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4년 2월 1일(목요일)
▶발인일시 : 2024년 2월 2일(금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 하귀농협장례식장 101분향실
▶장 지 : 광령리 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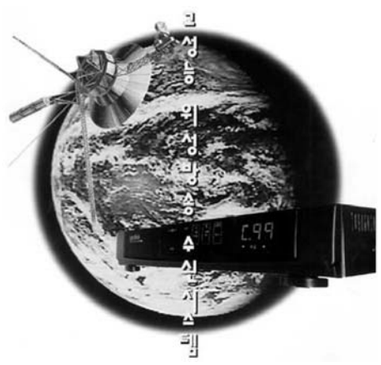
아 들 김경국 / 홍국 / 완국
며느리 문덕심 / 현근자 / 조명희
손 자 김태성 / 희성 / 우성 / 학성 / 민성
손 부 좌혜숙 / 조 비 / 김연수
손 녀 김은정 / 원경 / 지연
증손자 김지단 / 지민
증손녀 김지수

※ 연락처 : 김경국 010-3344-034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척추 허리 골반
중풍마비(실어증), 어깨, 엉치, 다리통증, O.X다리, 키크기, 성장 교정
1회 체험으로 대만족
Snpe,활력도비술, 정통고려활법전승계승자
대한활법연맹
010-7121-8275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산란계 양계장의 기적
황칠 발효액
① 산란시기가 1개월이상 빠름
② 양계장내 악취 90%이상 중화
③ 소화흡수율이 높음
④ 혈액순환 촉진 및 간기능 개선
⑤ 지방축적감소
토종닭 6개월간 시험 완료
※ 동물 자체시험 결과임 ※
임상시험 원하시는 양계장에 약4개월간 원가 공급 예정
황칠재배농장 제주시 보배길 32-16
濟大수의학과졸 70대 수의사(김상흡) 개발중
문의전화 010-5169-4520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